

과로사를 조장하는 야간 노동에 브레이크를 걸자

장항미 노동시간센터 회원

인간은 잠을 줄이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한다. 2023년 싱가포르 국립대와 핀란드의 한 수면기술 스타트업 공동연구팀에서 발표한 35개국 대상 ‘수면시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으로 34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더 적은 수면시간을 기록한 나라는 일본(6.1시간)뿐이었다.¹⁾ 과로사 문제가 처음 대두된 일본과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한국²⁾이 나란히 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노동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1,719시간보다 182시간이 많다.³⁾

건강을 해치는 야간 노동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 노동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야간 노동을 수반한다. 야간 노동이 일하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는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2019년 야간 노동을 2군(Group 2A)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야간 노동은 생체주기 리듬을 깨뜨리고

1) 한국인 평균 수면 6.3시간, 35국 중 34위. 우리보다 더 안자는 나라는?, 조선일보, 2023.09.19

2) 고용노동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과로사 산재 현황' 자료 기준, 과로사 신청 건수 2017년 576건, 2018년 612건, 2019년 747건, 2020년 670건, 2021년 1~7월 438건 (출처 : 과로사 산재 신청 승인 39.6% 노동자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돼야, 뉴스 클레임, 2021.10.15)

3) 근로시간 10년 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연합뉴스, 2024.03.03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며, 수면장애 및 소화기계통 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 또한, 야간 노동으로 인해 낮과 밤이 바뀌면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과의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등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있다.

야간 노동의 확대와 산업 재해 증가 문제

2015년 마켓컬리가 처음 도입한 야간 배송 서비스를 쿠팡 등 다른 배송 업체들도 앞다투어 도입하면서 물류, 배송 서비스에서 야간 노동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⁴⁾ 더 나아가 야에 야간 노동만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물류 및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 야간 노동의 위험성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화 업무는 필수 공공 노동이지만 관행적으로 야간작업으로 수행돼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38,020건에 이르고 이 중 승인 건수는 34,246건에 달하였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산재 사망 사건 중 약 39%는 과로사의 주요 판단 지표인 뇌심혈관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고 주요 원인으로 는 야간 노동이 손꼽혔다.⁵⁾

환경미화 업무에 대하여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작업을 권고한다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요구나 주민 생활 불편 등의 이유로 여전히 야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쿠팡은 2022년 산업재해율이 5.92%로 같은 해 국내 전체 산업재해율(0.69%)의 9배에 달하며, 조선업(2.61%)과 건설업(1.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쿠팡이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한 마지막 해이며, 이후 쿠팡은 물류 배송업무를 계열사와 위탁업체로 분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쿠팡 계열사 산재 신청 및 승인'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CLS'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99건, 2023년 328건, 2024년 상반기 237건으로 급증했다.⁶⁾ 쿠팡의 야간 배송 서비스는 2018년에 시작되었고,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야

4) 유통업 70% "밤에만 일한다"···더디지만 한 '야간 노동' 보호, MBC뉴스, 2021.11.24

5) 환경미화원 5년간 598명 사망···야간근무 등 과로사 39%, 뉴스 1, 2024.10.17

6) 조선 건설업보다 위험하다··· 쿠팡 산업재해율, 전체 산업의 9배, 한국일보, 2024.10.10

컬리 샷별 & 하루배송

싱싱한 채소·과일도
지금 꼭 필요한 뷰티·리빙 용품도
다음날이면 우리집 문 앞에!



▲ 마켓컬리를 필두로 배송업체들이 앞다투어 야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물류, 배송 서비스에서 야간 노동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사진 : 마켓컬리 홈페이지 갈무리

간 노동의 확대와 산업재해 증가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야간 노동의 규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지난 2018년 통계 분석 결과, 야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2조 6359억 원으로, 이 중 약 51%의 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⁷⁾ 야간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따당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 개인과 사회에 전가하는 셈이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스스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빠른 배송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야간 노동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던 시기, 권익위에서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 87%가 노동환경 처우개선을 위해 택배 배송 일정이 늦어져도 괜찮다고 답한 사례가 있다.⁸⁾

최근 정부 여당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제’ 예외직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⁹⁾

야간 노동의 확대에 기반한 새벽 배송이 물류, 배송 서비스 기업의 혁신적인 성과로 포장되는 현실과, 반도체산업의 부진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시켜 타파하겠다는 기적(?)의 논리는 서로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논리로 야간 노동은 산업을 가리지 않고 점차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야간 노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7) 年 2조 6000억... 108만 야간노동자의 눈물값입니다, 서울신문, 2020.11.11

8) 국민 87% “택배기사 처우개선 위해 배송 늦어도 괜찮다”, 한겨레, 2020.11.10

9) 노동계,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에 “경제위기를 노동자에 전가”, KBS뉴스, 2024.11.15